

耘谷 元天錫의 詩戲에 대한 小考

- 〈許同年仲遠以詩見寄分字爲韻二十八首〉를 중심으로

김동준*

— <차 례> —

1. 머리말
2. 『耘谷詩史』에 나타난 詩戲의 전반적 양상
3.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의 구성과 회작적 성격
 - 1) 작시 내력과 상황
 - 2) 작품의 구성방식과 회작성의 윤곽
 - 3) 작품 세부의 회작성
4. 맺는말

〈국문초록〉

이 글은 元天錫의 『耘谷詩史』에서 詩戲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괄하여 그 전반적 양상을 짚어보고, 그중에서도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이 지닌 회작으로서의 특성과 그것의 詩史的 의미를 조명해본 것이다.

詩戲란 기본적으로 시 짓기의 즐거움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산생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의 문화를 읽어내는 코드가 되기도 한다. 필자는, 현전하는 자료가 드문 고려 후기 한시 문단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천석의 사례가 한시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운곡시사』에서 간추릴 수 있는 詩戲의 사례를 모아 그 전반적 양상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 작품이 간과될 수 없는 시사적 위상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품은 14세기 한국한시가 일구어나간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흥미로운 성과 중에 하나이며, 특히 희작의 역사에서 참신하고도 문학성이 짙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元天錫, 『耘谷詩史』, 詩戲, 戲作,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

1. 머리말¹⁾

元天錫(1330-?)의 『耘谷詩史』는 漢詩를 통해 14세기 지식인의 내면과 시대 환경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자료이다. 고려 지식인의 현전 개인문집이 드문 상황이기애 귀하고, 당대 시단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기에 그 가치가 중하다. 특히 한시문학을 탐구하는 시각에서 보건대, 22세(1351)부터 65세(1394)까지 쓴 총 1,144수의 한시는 원천석 한 개인의 시적 여정을 충실히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한시가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과 현장을 대변해주는 사례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은 이 가운데, 시 짓기의 즐거움과 유희라는 각도에서 원천석이 일구어낸 詩戲의 양상에 집중해보고자 한다.²⁾

詩戲란 시를 통한 유희를 뜻하는 개념으로써, 시의 용도와 직결된다.³⁾

- 1) 이 글은 제10회 운곡학술대회; [耘谷詩史의 作品 世界](사단법인 운곡학회, 2009)에서 발표한 글을 얼마간 다듬은 것이다.
- 2) 원천석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김남기, 「元天錫의 生涯와 詩史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이인재, 「고려말 원천석의 학문관과 지역활동」, 『한국사상사학』 15, 2000; 김인호, 「원천석의 당대 인식과 처세의 지향」; 김홍삼, 「『耘谷詩史』의 승려·사찰과 여말선초의 불교동향」; 박경안, 「원천석의 은둔생활과 현실인식」; 이익주, 「원천석의 생애와 현실인식 재고」; 이인재, 「중세 지방지식인, 원천석 삶의 이모저모」; 정호훈, 「조선후기 耘谷詩史의 영향과 高麗史 敘述의 변화」; 최광범, 「운곡 시(詩)에 나타난 자연미와 인격상」; 허경진, 「『운곡시사』에 나타난 시사(詩史)의 의미」(이상 『耘谷 元天錫 研究』, 원주시,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詩戲의 맥락에서 원천석 한시의 희작을 검토한 것은 이 글이 처음이다.

시의 본질이 자아 표현의 간절함과 그로 인한 감명에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유희는 그 본령에서는 벗어난 부차적 영역에 속할 것이다. 말하자면 원천석 한시의 시적 성취도와 도달한 최상의 경지를 부조하고자 한다면 시회란 적합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짓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했던 시인의 입장에서 보건대, 때로 시 짓기는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창작의 일환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시를 매개로 한 즐거운 놀이는 엄연히 한시문학 내부의 한 범주를 이룬다. 그런 맥락에서 원천석의 『운곡시사』에서 이런 양상을 살필 만한 자료가 있음은 쉬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회가 시인 자신의 인생을 결명한 혼신의 연마 대상이었다고 하기 어려울지라도, 한편으로는 유희의 이완과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시인의 재능을 드러내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가령 <翰林別曲>에서 李奎報와 陳漣의 ‘雙韻走筆’을 특기하고 있는 것은 작품의 성취도와는 별개로 남다른 작시 재주를 흠모하였던 저간의 풍상이 드러나 있다. 얼마나 좋은 작품을 쓰느냐와 더불어 얼마나 능란하게 시를 지을 수 있는느냐는 한시사의 오랜 세월 동안 시인을 평가하는 또 한 갈래의 기준이 되어 왔다. 원천석 역시 작시 재능을 현시하려는 욕구에서 여러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으려니와, 各體의 습작과 훈련, 재능의 과시를 겸하면서 시회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耘谷의 시회에 대한 검증은 운곡 시문학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면에 대한 탐색과 직통한다.

그런데 필자가 운곡의 시회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시회가 당대 한시 문화의 일단을 있는 대로 보여줌으로써, 시의 사회적·문화적 기

3) 詩戲의 개념은 시의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유희성을 띤 작품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이 글에서 유념해서 보고자 하는 대상은 희작의 배경을 이루는 시의 문화와, 그것에 기초해서 형식적 변화를 보인 일련의 희작적 작품들이다.

능과 위상을 살피기에 적절해서이다. 본문에서 살피겠지만 그가 구사한 시회는 그만의 고독하고 예외적인 시작활동이 아니라, 다른 시인들도 그랬을 법한 평균적 유행에 기초해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 독자의 동의가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회는 곧 14세기 한국한시 문화를 읽어내게 하는 詩史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본고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밝혀둔다. 사단법인 운곡학회에서 간행한 『耘谷詩史』를 원전 자료로 삼고, 『국역 운곡시사』(이인재·허경진 옮김)의 번역을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耘谷詩史』에 나타난 詩戲의 전반적 양상

『운곡시사』에서 시회의 양상을 살피자면 먼저 시회의 배경을 이루는 次韻과 酬唱 문화에 관심이 미친다. 차운과 수창을 곧바로 시회라 할 수는 없으나, 시를 통한 교류 및 시에 의한 대화가 빈번히 진행됨으로써 시회를 낳는 주요인이 된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한다. 사실, 수창문화가 시회와 긴밀할 수 있음은 삼국시대의 流觴曲水 [예컨대 포석정의 사례] 및 고려중기의 君臣遊宴[특히 예종·인종 연간의 사례들]에서부터 일찌감치 그 싹을 찾아볼 수 있다. 제한된 시간에 능수능란하게 시를 지어야 했던 터라,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된 시를 두고 진지한 성찰과 자기표현의 시라 하기에 부족한 바가 없지 않다. 만년의 이규보가 자신의 走筆 재능에 대해 스스로 겸연쩍어 했음을 상기할 만하다.

『운곡시사』에 수록된 빈다한 차운시는 일차적으로 당시 문인의 생활이 詩作의 일상화로 나아갔음과 한시가 교양인의 교유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의 시에 내적 독백을 주조로 한 詠懷類의 한시와, 기

행·영물·자연·일상사 등을 소재로 한 자기표현의 한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운의 비중이 확대되어 있는 것 또한 현상적 사실이다.

이제, 차운과 수창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운곡시사』에 수록된 차운 작품들을 권별로 개략하고, 아울러 시회와 관련하여 주의할 만한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권1】 가) 원주 지역의 관료, 나) 동료와 동년, 다) 친족과 친지, 라) 승려와 수창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의 사례: <題趙牧監幽居>, <次李尙書所示詩韻>, <用前韻作二詩呈宋牧伯>, <牧伯見和復次韻 三首>, <奉送宋牧伯政滿如京 二首>, <趙摠郎見和陋拙齋詩 復用前韻呈似>, <次金牧伯川陰亭詩韻>, <正月二十四日 西谷張尙書亡 道境作挽詞云 (중략) 又次牧伯詩云 (중략) 次韻>, <次崔向上安乙所贈詩韻 二首> 등.

나)의 사례: <乙未秋七月有日 春城金安二生罷課還鄉 諸生作詩送別得秋字>, <十二月十七日 同年鄭道傳到此贈予詩云>, <次同年金費所贈詩韻>, <次安同年仲溫見贈詩韻 三首>, <次安同年喜雨詩>,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 <寄春城鄉校諸大學>, <宿安東次板上韻贈權同年從義> 등.

다)의 사례: <次家兄所示詩韻>, <次姪湜所寄詩韻>, <家兄與元西谷見和 復書二首>, <次白雲淵長老詩韻>, <戊申正朝有雪 元先生立作詩云 (중략) 次韻答之> 등.

라)의 사례: <次道境詩韻>, <禪翁見和復次韻>, <次覺林堂頭圓通祝上詩韻>, <二月有日 曹溪參學允珠自嶺南來 過予因示師尊隣角大禪翁所贈詩日 (중략) 次韻 二首>, >道境大禪翁寄書云 (중략) 詞語切懇 感於予心 次韻奉呈 四首>, <正月二十四日 西谷張尙書亡 道境作挽詞云 (중략) 又次牧伯詩云 (중략) 次韻> 등.

이 네 갈래 부류는 원천석의 시를 매개로 한 交驩 범위를 대변해준다. 가)는 登科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비록 고향 원주에 낙향하였을망정 登科人이라는 특별한 배경이 지방관과의 교류를 가능케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를 통한 지방 관료와의 인연은 이후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국면이다. 나) 역시 등과로써 맺은 인연이 시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의 아닌 낙향과 그로 인한 낙담은 오히려 同榜同年들과의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예비 관료로서의 동질감이 차운의 교감으로 연결되었던 셈인데, 다만 동년과의 시적 교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줄게 된다. 이는 官界로부터의 소외가 곧 동년과의 교류를 차단해나갔음을 뜻하는 현상이다. 다)는 그의 가계 범위에서 한시 작성 능력을 소중하게 여겼음을 시사한다. 과거 응시를 위한 소양 교육이 가계 및 친족 범위 내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라)는 당시의 문자교양인 반열에 승려가 대등하게 동참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원주지역에서 승려와 문인 사이의 詩交가 흔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원천석의 주요 시교 대상이 승려들로 집중되어간다는 흐름에서 눈여겨 볼만한 현상이다.

시회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작품은 나의 <乙未秋七月有日 春城金安 二生罷課還鄉 諸生作詩送別 得秋字>에서 보듯이 송별 장면에서 分韻作詩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시귀나 글귀 또는 韻目에서 각자가 글자 하나를 뽑아 압운자로 삼는 이런 작시법은 일반적인 시회 수준에서 속한다 할지라도, 제한된 시간과 조건에서 시 짓기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면에서 시회의 한 장면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특히 동방동년이었던 허중원이 보내온 칠언절구 28자를 이용하여 각체를 시범한 <許同年仲遠 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는 원천석의 시회 중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작품이다. 같은 원주 출신의 동방급제자였던 허중원이 보내온 시

가 원천석에게는 매우 각별하게 느껴졌던 듯하다. 이 각별한 인연에 기초해서 그는 한국한시사에서 매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시회 장면을 연출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진행키로 한다. 기타 차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가 근체시 및 고체시의 구사와 더불어 <促織詞> 및 <白鷗詞>를 짓고 있음도 유의해두고자 한다. 이런 일면은 곧 당시 문인들이 詞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권2】 가) 지방 관료와의 차운, 나) 승려(특히 도경선사)와의 수창시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 지방 동료들과의 교환은 지속되나 동년동방과의 수창이 줄어들고 있으며, 라) 친족 및 친지와 차운은 계속되고 있다.

가)의 사례: <庚戌春 旌善刺史安吉常寄詩于牧伯云 (중략) 次韻并書短引 拜呈牧伯左右>, <次成相國所示詩韻>, <次趙侍郎所寄詩韻>, <次金按部早中得雨詩韻 濤>, <金按部牧丹詩次韻>, <趙侍郎寄詩次韻>(조시량은 원주에 머물다가 상경한 인물임), <和前刺史閔公題徐奉翊郊居詩并序>, <次刺史僕公與山城別監尹得龍唱和詩韻>, <次鄭司藝詩韻>, <次僕刺史寄道境詩韻> 등.

나)의 사례: <次道境詩韻 二首乙卯年>, <乙卯十一月念三 家兄病亡道境禪翁作挽歌二章云 (중략) 又云 (중략) 次其韻以敘悲哀>, <次道境所示詩韻 呈萬歲堂頭座下 雙韻>, <次道境禪翁山居苦寒詩韻>, <次曹溪長老禪豎 贈丘大選詩韻>, <興法大禪翁省珍 以曹溪行脚文軫斯近兩人所著詩一軸 走价責予詩 次韻奉寄>, <書高巖卷 寧師 雙韻> 등.

다)의 사례: <次春州辛大學所寄五言雙韻三十韻奉寄>, <又>(雙韻三十韻임), <諸公見和復次韻>(*諸公은 향교의 교유인물들임), <次同年金偶 舍人詩韻 二首>, <同年沈益州方哲示尹壯元所贈詩云 (중략) 次韻>, <同年沈益州所示詩卷 卽尹壯元所製絕句 諸公分字爲韻 予得錦字> 등.

라)의 <子誠見和復次韻 三首>(* 子誠은 아우임), <甲寅三月 移居弁

巖新居 家兄來設小酌 題詩贈之曰 (중략) 次韻 二首> 등.

시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는 雙韻이 몇 차례 시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쌍운의 작시법은 홀수구는 홀수구대로, 짝수구는 짝수구대로 압운하는 방식인지라 운을 구사하는 능력을 확인하기에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次春州辛大學所寄五言雙韻三十韻奉寄>와 <又>는 雙韻三十韻의 비교적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시 학습과 관련하여 쌍운의 방식이 의도적으로 폭넓게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춘천의 신대학이 부쳐온 쌍운삼십운에 운곡이 다시 쌍운삼십운으로 차운한 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시 詩交의 현장에서 쌍운이 오고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사실은 <한림별곡>에서 “李正言 陳翰林的 雙韻走筆”로 흠모되었던 진화와 이규보의 경우, 정작 명성에 상응할 만한 쌍운주필 작품이 남아 있지 않거나 혹은 편폭이 단소하다는 점이다. 진화의 현전 문집에는 이와 관련된 작품이 없을뿐더러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도(특히 후집) 단소한 古律詩 형태의 쌍운작품들이 얼마간 남아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규보의 쌍운작품은 律詩 8구의 편폭을 넘지 못하는 작품인지라, 이것으로 走筆의 명성을 증명하고 나아가 주필의 속도감을 전달하기에는 적지 아니 미약하다고 본다.⁴⁾ 그런 면에서 원천석의 사례는 특기할 만한 물증으로써, 당시 시단에서 쌍운주필이 시적 재능을 진단하는 작시 방식으로 통용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예컨

4)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한국문집총간 1-2), 『後集』에 실려 있는 <三月十四日大雨雹 二首 雙韻>, <又五言 雙韻>, <鬱懷有作 雙韻>, <和絕句 雙韻>, <渴雨 雙韻 四月十一日>(이상 권9), <又以短篇 破酷嗜廻文之意 雙韻>, <卯飲 雙韻>, <聞笳聲 雙韻>, <蟻拖蟲 雙韻>, <四月二十四日大雨 二首 皆雙韻>(이상 권10) 등인데, 이들은 ‘古律詩’로 분류되어 있다.

대, <次道境所示詩韻 呈萬歲堂頭座下 雙韻>, <江水深四章 章六句 寄元都領> 등의 쌍운 작품은 道境禪師, 元都領 등을 수신자로 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쌍운의 저변과 교환의 범위가 좁지 않았음을 추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쌍운과 더불어 <同年沈益州所示詩卷 卽尹壯元所製絕句 諸公分字 爲韻 予得錦字>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분운작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乞 恩俚言二首 呈牧兵馬使周相君>에서 이언투를 혼성한 시가 등장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권3】 차운의 형태는 아니지만 승려의 詩卷에 써준 시가 수십 편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시 교유의 대상이 승려로 집중되어 감을 뜻한다. 지방 관료와의 차운은 지속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회와 관련하여 특별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영 장군이 꿈에 명나라 황제의 명에 따라 '呼韻命製'한 예를 특기하며 자신도 차운을 시도하고 있음은 唱韻捷對의 가정적 상황에 동참하려는 작자의 욕구를 감지케 한다. 應口捷對 방식은 특정 순간에서의 시적 재능과 순발력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회의 요소가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 관련자료: <次趙奉善元日見贈詩韻>, <次推田別監權公上牧伯詩韻>, * 기타: 스님들의 시권에 써준 수십 수의 시가 있음, <題趙奉善所述契內同發願十詠卷後 二首>, <六道都統使崔相夢謁大明皇帝 皇帝以各色衣服賜之 仍呼韻命製 相國隨韻奏呈云 (중략) 聞之奉次韻 作二絕以備忘云> 등.

【권4】 만년으로 갈수록 詠懷, 送別의 시적이 증가하는 추세인지라 전반적으로 차운이 줄어드는 형세이다. 차운 형식과는 별개로 스님들의

시권에 써준 시들이 적지 않으며, 지방 관료의 시에 차운하는 양상은 여전히 계속된다. 친족과의 수창 중에契에 참석하여 지은 작품 및 방문한 유생들과 수창한 작품이 더러 눈에 띈다. 작시 재능을 과시해보고 싶은 젊은 날의 충동과 기회가 줄어들는 대신, 작가의 처지 변동 및 처한 환경에 대응하여 시작의 전체적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정황에 따라 이 시기는 시회를 운위할 만한 작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 관련자료: 권두에 스님들의 시권에 써준 시들이 다수 수록됨, <是月念三 觀察使道副使鄭公 士毅 垂訪陋齋 五首>, <鄭公見和復次韻 五首>, <復用前韻送鄭公向楓岳關東>, 권 중간에 방문한 유생들 및 스님들에게 써준 시들이 다수임, <次韻邊竹岡愷利名詩書于卷後>, <次半刺先生所示淮陽府使李恒詩韻 九首>, <十一月二十八日 元契長叔老設宴于要濟院招契內諸公 予亦參于席末 作 一首以呈似>, <次山人角之詩韻 四首>, <復次>

【권5】 노경으로 갈수록 그날그날의 일자와 날씨를 제목으로 삼아 소회를 적은 시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스님들의 시권에 써준 시, 계모임에 참석하여 지은 시, 지방 관료와 교유한 시들이 공존하며, 지방유생들의 시짓기에 동참하여 지은 작품들이 더러 있다. 시를 일상소회의 표현수단으로 전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며, 시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戲’로 보아달라면서 작품 제목에 ‘戲’자를 단 작품 두 수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작가의 의도를 따르건대 이 희작의 題名은 시의 형식과 작법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가벼움과 장난스러움을 의식한 결과이다.

※ 관련자료: 권두에 지인들의 편지 왕래에 부친 시들, 스님들의 시권에 써준 시들, 계모임에서 지은 시들이 다수임, <十八日戲詠>, <次宋獻納愚上興法丈室詩韻>, <次宋獻納上牧伯詩韻>, <次兔山守所示詩韻 郡守重修鄉學 有事釋奠 諸公作詩>, <次半刺楊先生所示按節鄭公題洪川客館詩韻>, <次半官先生山城反庫次有感詩韻 六首>, <次半刺先生韻> 6수, <聞鄉學諸生賦雪 次韻寄似>, * 중간에 일기와 날짜 제명의 시들이 다수임, <半刺先生寄詩 次韻奉呈>, <曹進士餞行 次宋獻納詩韻, 次半刺先生所寄詩韻> 5수, <病中戲書 四首 時澗在京師從事>, <次諸生秋日詩韻>, <次新及第邊 處厚 所寄詩韻>, 중간에 일상의 소사를 소재로 삼은 시들이 다수임, <次韻楊半刺對葵吟> 등.

이상 『운곡시사』에 나타난 차운시들을 배경으로 삼아 시회의 일단을 간추려보았다. 작가의 생애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의 시회는 생애의 前半部에 집중되어 있거니와 그 양상도 작시 훈련 및 재능의 시현과 관련이 깊다. 쌓운과 분운 및 각체의 제작 역량을 증명함으로써 작가의 작시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시회를 관통하고 있다 할 만하다.

시회가 지나치다 보면 혹 정격의 제한선을 이탈하여 破格과 解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김삿갓의 肉談風月類나 19세기의 諺文風月은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운곡의 시회가 지닌 전반적 양상은 各體, 詞牌, 雙韻, 分韻 등 형태를 즐겨 구사하고 있으나, 기존의 시형을 조롱하거나 해체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시사의 유구한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경향은 한시의 해체 방향이 아닌 한시의 학습 방향에서 시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각종의 이체시들, 가령 藏頭體, 神智體, 藥名體 등의 형식이 이 시기까지 아직 보이지 않음에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체시가 원천석 당대 이전에 아예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이인로의 『과한집』에 문자유

회의 하나로 回文詩를 지적한 바도 있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후집)에 몇 수의 회문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며, 고려중기의 승려 혜심(慧諶, 1178-1234)이 지은 <次錦城慶司祿從一至十韻>은 불탑 형태를 본뜬 寶塔詩로서 이체시의 색다른 모습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원천석 이전에도 문인들은 얼마간의 이체시를 향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후대, 예컨대 16세기 이후에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접반사 집단 내에서 여러 종류의 이체시들이 활발하게 제작되는 양상에 비하면 원천석 이전의 시대는 이체시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흐름에서 원천석의 시회가 놓인 역사적 위치를 가늠하자면, 그의 시회는 異體詩의 폭넓은 정착 단계에 이르지는 않고 있으나, 분운작시, 쌍운구사, 능란한 차운 등을 통해 작시 재능을 확인하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의

구성과 희작적 성격

1) 작시 내력과 상황

<동년 허중원이 시를 부쳐 왔기에 글자를 나누어 운을 삼고 28수를 짓다(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는 『운곡시사』의 권1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기순으로 편차된 『운곡시사』의 수록 방식으로 보건대, 1364년작 <正月十七日雪>(甲辰)과 1365년작 <首夏幽居>(乙巳) 사이에 수록되었음에 근거하여 대략 1364년 가을 무렵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원천석의 나이는 35세였으니, 1360년 국자감 진사시 급제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기에 해당한다.

1360년에 국자감의 진사시에 합격했음에도 그는 뜻하지 않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원주에 낙향해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개경에 머물며 환로에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시점인데도 그는 낙담한 채 원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1360년 12월 17일에 정도전이 원주의 원천석을 방문하여 써준 시 <十二月十七日 同年鄭道傳到此贈予詩云>의 수련에, “동년인 원군이 원주에 머물러 있으니, 다니는 길 평탄치 않고 산골이 깊기도 하구나(同年元君在原州 行路不平山谷深)”이라고 한 묘사한 대목으로 보아 원천석의 삶이 소원대로 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니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정도전의 묘사는 뜻이 좌절된 채 낙향해 있는 원천석을 위로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정도전의 시에 이어 비슷한 시기(아마도 1361년 경)에 수록된 <次同年金費所贈詩韻>, <次安同年仲溫見贈詩韻 三首>, <次安同年喜雨詩>도 당시 원천석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년과의 차운작이 이 즈음에 집중해 있음으로 미루어 동년급제자끼리의 영예를 기억하는 교유가 확인되거나, 원천석으로서는 이들이 보내온 시를 받고 벗들의 관심과 배려에 반색하는 한편으로 그들과의 사귀이 지속되기를 바라거나, 자신을 천거해서 애초의 뜻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次安同年仲溫見贈詩韻 三首>에서 “번거롭더라도 公車를 향해 한 번 천거해 주기를, 산림에도 세상 구할 재주 있는 자가 있나니(願向公車煩一薦 山林亦有濟時才)”라고 읊거나, “주 무왕이 강태공의 낚시를 거두게 했고, 촉의 임금이 제갈공명의 집에 세 번 방문했었네. 가시 숲이라고 어찌 난 초 향기 없으랴? 산길이라 꺼리지 말고 내 집을 찾아주게(周后一收姜叟釣 蜀君三顧孔明廬 棘林豈欠芝蘭馥 莫厭山程訪我居)”라고 한 데서 보듯이, 세상에 나아가 포부를 실현하고 싶은 꿈을 읽어낼 수 있다. ‘가시 숲(棘林)’ 같은 원주에서 벗어나 강태공이나 제갈공명처럼 지우를 입고

싶은 소망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次安同年喜雨詩>의 미련, “그 누가 알아주리, 우산 쓴 나그네가, 부서진 집에서 청빈을 즐기고 있음(誰知持傘客 破屋樂清貧)”이란 구절도, 겉으로는 안빈낙도의 안온함을 읊고 있지만 그 속뜻은 喜雨의 雨露之恩을 입지 못한 데 대한 상실감을 겹쳐 쓴 듯 보인다.

동년의 방문과 편지가 격조해질 즈음, 그는 <謝榮親宴詩 并引 上金牧伯>의 并序에서 김목백의 ‘채찍이라도 잡을 뿐만이 아니라 뼈가 부서진 다한들 결초보은의 마음을 잊지 않겠노라(奚啻執鞭之願 從當粉骨 敢忘結草之心)’는 하소연을 올리는가 하면, 1363년 무렵에는 <促織詞> 및 <白鷗詞>를 지어 가을 귀뚜라미와 같은 서글픈 신세를, 매이지 않고 훨훨 나는 해오라기의 자유로움을 읊고 있다. 낙향과 좌절을 감내해야 하면 서도 내면의 상심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동년과의 소식도 끊겨가고 좌절이 체념이 되어갈 즈음에 그는 문득 같은 원주 출신이었던 동년 許仲遠에게서 엄살 같기도 하고 장난 같기도 한 칠언절구 한 수를 받게 된다. ‘형제처럼 서로 친했던 허중원(吾友許夫子 相親如兄弟)’이 마침내 안부 삼아 시로 쓴 편지를 보내온 것인데, 원천석은 특별히 이를 기념하여 28자를 낱낱이 운자로 삼는 시회를 펼친다. 먼저, 이 28자를 모아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반딧불 창가에서 공부하는 빈한한 서생이
 원주 땅에서 헛되이 열은 명성을 차지했었죠.
 알지 못하겠구려, 金蓮이의 가련한 촛불은
 비단 병풍 깊은 곳에서 어떤 심정을 비추고 있을지.
 螢窓苦業一寒生 枉占原山薄行名 不識金蓮可憐燭 錦屏深處照何情

우선 이 시는 문안 편지의 용도를 겸했다고 볼 수 있다. 발신자는 허중원이며 수신자는 원천석이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앞의 동년 교유시와는 사뭇 다르다. 위로의 인사라고 보기에는 이 시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 외려 둘만이 아는 비밀을 숨겨놓은 듯하다. 참고로, 원천석이 시 작품에 표현한 대로라면, 허중원(許仲遠: 중원은 본명이 아니라 자에 해당하는 듯)은 현재 수도인 개경[鳳凰城, 帝鄉, 京洛, 朝玉墀, 長安道]에 나가네 처럼[旅窓, 旅舍] 머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참이다. 둘은 원주에 있을 때 서로 친숙하게 지내며 동학한 사이이며, 그렇기에 원천석이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던 벗이요 다시 한 번 정겹게 만나 술동이를 비우고 싶은 벗이다. 그런데 그는 개경으로 떠나던 날 원천석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고 홀연 고향을 떠났다(胡爲向帝鄉 與我無告出: 一) 이제야 이렇게 뜬금없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허중원의 편지가 원천석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본 까닭은 정작 이 시에서 근황을 묻고 싶은 대상이 다름 아닌 金蓮[기녀였을 듯한 인물임]이기 때문이다. 벗의 안부와 우울함을 달래야 마땅할 정황에서 이렇게 엉뚱한 편지를 보내온 데는 둘의 사이가 막역했다는 점, 허중원이 金蓮에게 폭 빠졌던 사연을 원천석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연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면 이 시는 자칫 무례한 것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원천석은 매우 이색적인 시회로 답한다.

2) 작품의 구성방식과 희작성의 윤곽

허중원이 보내온 칠언절구 28자를 낱낱의 각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천석이 답한 동 작품은 저절로 28자를 액자로 삼는 연작시로 전환된다.

또한 발신된 메시지가 ‘金蓮이는 지금 어찌 지내느냐는 내용’이므로 수신자인 원천석으로서는 두 갈래의 話者, 즉 금련의 목소리와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서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더욱이 두 갈래 목소리로 시를 읊는 과정에서 원천석은 색다른 시도를 펼친다. 그것은 28수의 시에 사패를 비롯한 各體의 시 형식을 두루 구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형식	화자	제재	특징
螢	七言律詩	원천석	우정 회고와 기원	전별의 추억
窓	七言絶句	원천석	금련 없는 객지 생활 위로	
苦	五言古詩	원천석	금련과의 풍류에 대한 권유	
業	七言古詩	금련	사랑의 호소	제목부기: 代金蓮
一	五言古詩	원천석	허중원의 인품 찬양과 소회	
寒	七言絶句	원천석	보내온 시에 대한 느낌	
生	五言律詩	원천석	작가의 심정 술회	
枉	七言古詩	원천석	우정 환기	
占	雜言古詩	원천석	금의환향 축원	
原	七言律詩	원천석	신세 대비와 부러움	
山	七言絶句	원천석	삶의 자세 다짐	
薄	五排 演雅體	원천석	둘의 처지 대비 묘사	제목부기: 演雅體
行	七言古詩	원천석	삶의 자세	
名	詞牌 阮郎歸	원천석	그리움과 환향 기원	제목부기: 阮郎歸
不	七言律詩	원천석	우정 환기와 회상	
識	五言律詩	원천석	그리움과 소식 전달	
金	七言絶句	원천석	벗의 성공을 기원	
蓮	六言絶句	원천석/금련	돌아오기를 기원	
可	七言古詩	원천석	굴원에 포겐 삶의 자세	
憐	七言律詩	원천석	허중원에 대한 생각	
燭	五言律詩	원천석	교유에 대한 추억	
錦	五言絶句	원천석/금련	동침했던 밤의 정경	염정적 분위기
屏	七言絶句	원천석	가상의 풍류 묘사	
深	七言古詩	금련/원천석	귀환 당부와 상봉행락 기대	

處	詞牌 蝶戀花	원천석/금련	귀환 당부	제목부기: 蝶戀花
照	六言絶句	금련/원천석	상봉지락 염원	
何	七言絶句	원천석	자신의 은거 형상	
情	五言絶句	원천석	우정 환기와 상봉 기대	

사패, 육언절구, 잡언고시를 비롯하여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오언배울 등의 시형이 망라되었다. 수신된 칠언절구 28자를 낱낱이 분절하여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다시 압운자의 하나로 차용한 것조차 이미 회작이라 할 만한데, 이렇듯 각체를 두루 선보이고 있음은 원천석이 허중원을 상대로 각체 망라의 시회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은 어찌면 둘 사이의 시교를 기념하는 시회의 詩軸을 따로 만들어도 될 만큼 시회를 확장한 모습이다. 필자의 과문을 단서로 한다면, 이런 형태의 시회는 『운곡시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이므로, 한국한시의 시회 또는 회작의 범주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시의 시회적 면모는 시형의 망라와 액자적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자의 용법도 시회적이라 할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대화라면 응당 화자의 목소리는 발신자의 입장에 충실해야 한다. 말하자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일대일의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금련이라는 제3자가 개입됨으로써 시의 화자는 원천석과 금련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변했으며, 어떤 시들은 그 화자가 금련인지 원천석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게 두 목소리가 겹쳐져 있다. 예컨대 <蓮>과 <錦> 두 수를 보자.⁵⁾

5) 『번역 운곡시사』에 번역된 이 연작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탓에 부적절한 번역이 적지 않다. 필자가 몇 곳을 바로 잡아 번역하고자 한다.

달빛 가득한 전당강은 맑고도 곱고
 서리에 꺾인 옥빛 가지는 곱고도 아리따워.
 나그네[그대]는 멀리서 노닐며 돌아오지 않건만
 시름 머금은 한 떨기는 가을날의 연꽃이래오.
 月滿錢塘淨麗 霜摧玉樹嬋娟
 客子遠遊不返 含愁一朵秋蓮

내 님은 참으로 똑똑한 선비
 시 지으면 비단을 짠 듯 했네.
 마음 놓고 취해 읊을 쟈
 구름 속의 달빛이 베개에 감겨들었네.
 吾子眞賢儒 作詩如織錦
 怡然發醉吟 雲月繞高枕

<蓮>의 화자는, 중국 항주의 西湖가 있는 전당강의 유명한 기녀 蘇小와, <玉樹後庭花>의 사연에 얽힌 궁녀에 기탁하면서 자신을 시름겨운 늦가을의 연꽃으로 묘사하고 있다. <錦>의 화자도 시와 술을 나누며 임과 동침했던 어느 여인의 목소리를 끌어왔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혹 이 두 편의 시를 제3의 관찰자 시점에서 작성한 염정풍의 낭만시로 본다면 그 때는 원천석의 목소리로 감상해도 괜찮을 듯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전자의 입장에 선다.

시희의 각도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화자와 목소리를 轉聲시킨 것만으로 시희라 규정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발-수신의 상황에 유념하건대, 원천석은 지금 오매불망 금련을 그리워하는 허중원을 놀리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내 안부는 묻지 않고 금련이만 궁금하다는 푸념도 섞인 듯

6) 『번역 운곡시사』에는 婢로 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한 대응방식이다.

3) 작품 세부의 희작성

이 작품이 발-수신자만이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금련이를 매개로 하여 희작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칠언절구 28자를 分韻作詩하여 각체 망라의 희작적 액자 연작 방식을 조성하였다는 점, 화자의 사용방식이 희작성과 연쇄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이제 작품 각편의 단위에서 시희의 양상을 짚어보기로 한다.

작품 각편 단위에서 낱말을 두고 볼 때, 이 낱말의 작품이 모두 희작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벗에게 보내는 정겨운 편지처럼, 또는 벗에게 속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처럼 이 연작시는 벗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전반적인 정조를 주도하고 있다. 스물 여덟 연작시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인 <螢>과 마지막 작품인 <情>을 본다.

기억나이, 그대 서쪽으로 도성 향해 떠날 때
 발걸음이 마치 물위에 뜬 마름 같았네.
 새벽 강가의 정자를 지날 쯤 찬 물결이 파랬고
 저녁 촌사에 투숙했을 쯤 먼 산이 푸르게 보였지.
 빼어난 그대 기개는 무성한 가을 소나무 같았고
 빛날 손 그대 이름은 향그런 여름 난초 같았네.
 멀리서 그러보니, 그대의 서울 책상에는
 눈 빛깔이 환하여 반딧불은 필요치 않으리.

記君西向鳳凰城 蹤跡猶如水上萍
 曉過江亭寒水碧 晚依村舍遠山青
 挺然高節秋松茂 赫爾英名夏蕙馨
 遙想京都讀書榻 雪華輝映不須螢

내 친구 허형이여!
 서로 친하기 형제 같았네.
 어느 때나 술 한 통 앞에 두고
 다시 만나 정겹게 이야기할까?
 吾友許夫子 相親如弟兄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情

28수의 첫머리에서 허중원과 이별했던 과거의 송별 장면을 회상하고, 마지막 작품에서 어느 때나 정겨운 만남이 다시 가능하겠느냐고 했으니, 수미의 호응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친밀감으로 짜인 형국이다. 허중원이 보낸 시름겨운 엄살, “반딧불 창문 아래 괴로이 공부하는 쓸쓸한 서생이, 헛되이 원주 땅에서 얇은 명성을 차지했었네(螢窓苦業一寒生 枉占原山薄行名)”를 상기컨대, 원천석은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무성한 가을 소나무 같았던 기개와 향그러운 여름 난초 같았던 이름’으로 답하고, 희미한 반딧불 아래 쓸쓸히 공부하는 처량한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눈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부러운 조건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다.⁷⁾ 헤어지던 과거의 그 어느 날에 들어서 새벽 강을 걷고 해질녘 촌사에 함께 묵었던 추억도 둘의 교감을 길게 하고 있다. 이 교감과 위로의 끝에 ‘술 한 통이 앞에 놓고 다시 정을 이야기 할 날’이 기다려지는 셈이다.

수미가 이렇듯 호응하다 보니 작품의 중간 중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기도 하고, 객지에 나가 살아야 하는 벼를 위로하기도 하는 시들이 점철되는 것이 당연하

7) “螢窓苦業一寒生”과 “雪華輝映不須螢”은 둘 다 ‘螢雪之功’의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허중원은 ‘반딧불’, ‘고생스러움’, ‘쓸렁한 신세’로서 타향살이 하는 어려움을 푸념하고 있는 반면, 원천석은 ‘휘영청 밝은 눈빛’을 배경으로 남 부러울 것 없이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대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꾸 안에는 전도양양한 삶을 부러워하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一>에서 “천금 같은 몸을 보중하여, 평안하고도 만사가 길하길(願保千金軀 平安加萬吉)” 바라고, <生>에서 “세상살이 자세히 따져보니, 처량하게 온갖 생각 일어나네. 인생 부침은 세월 따라 달라지고, 모이고 흩어짐도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細算人間事 悽然百感生 升沈隨日在 聚散似雲行)”이라고 고백한다든지, <占>에서 “고향산천이 금의환향을 기다리니, 그대여 桂苑의 봄빛을 일찌감치 차지하시길(溪山忙待衣錦還 願吾子 桂苑春光須早占)”이라 기원하는가 하면, <山>에서 “도가 끝으니 세상사에 용납되기 어려워, 한 평생의 자취를 호수와 산에 맡기네. 乾坤 간에 高吟大醉하면서, 외로운 구름이 한가롭지 못함을 웃으며 보네 (道直難容世路間 一生蹤跡寄湖山 高吟大醉乾坤裏 笑看孤雲尙未閑)”라고 자부하는 모습들이 모두 이러한 결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가다가다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작품 곳곳에 금련의 존재가 직·간접적으로 끼어들기 때문이다. 제2수, 제3수, 제4에 해당하는 <窓>, <苦>, <業 代金蓮>을 차례로 본다.

오래도록 蓮燭 없이 蘭缸만 마주하니
 나그네살이 창가에서 사념이야 끝이 없으리.
 모이고 흩어짐은 본래 일정키 어려운 법이니
 짝 잃은 외로운 기러기라 슬퍼하진 마시게.
 久違蓮燭對蘭缸 無限思量在旅窓
 聚散由來難自定 莫嗟孤雁未成雙 - 제2수<窓>

세상 밖에서 부침타 보니
 산빛만이 예나 이제나 한결같이.
 사람마음은 아침 저녁이 다르니

진실과 거짓을 어찌 족히 알리오.
 그대의 시 한 수를 읽어보니
 말뜻이 왜 그리 괴로운 게요.
 그대의 마음은 천금처럼 무겁지만
 여자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원래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개미가 꿀뚝 이익을 따라가는 법.
 겉모양만 보고 믿어선 안 되니
 행실에 믿을 바가 없지 않았던가.
 내 인생은 풍류를 끊었으니
 홀로 다니며 구부정하다네.
 술잔 들고 푸른 산 마주한 채
 마음 활짝 노래하고 춤도 춘다오.

浮沈世間外 山色無今古 人心異朝昏 實虛那足數
 看君一首詩 詞語何更苦 君意重千金 兒心輕一羽
 元無彼此分 後塵如蟻聚 且莫信毛皮 所行無可取
 我生絕風流 獨行常踽踽 把酒對青山 隆然歌且舞 - 제3수<苦>

당신 보내고 당신 생각 아니 한 날 없어
 눈물이 줄줄 흘러 뺨에 가득해요.
 우리 두 곳을 강과 산이 가로막았다지만
 밤마다 꿈과 혼이 산 넘고 물 건너지요.
 저랑 이별한지 이제 얼마인가요?
 이별의 설움 성이 되어 겹겹이 막혔네요.
 난간에 기대 머리 굽으며 홀로 정을 품은 채
 근래 겪은 불행에 탄식만 터집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五陵郎이 되어
 꽃과 달의 누대에서 마음 절로 흐뭇하겠지만

새 애인 생겼다고 옛 약속 잊질랑 마오
 배신한 임은 뒤쫓아 혼낼 수도 없으니까요.
 명심코 생생히 잘못일랑 반성해보세요
 사람은 자기 눈썹을 보지 못한다잖아요.
 원컨대 노력해서 용문에 오르시고
 만리 뺨은 구름길에서 청운의 꿈 이루세요.

送君無日不懷君 清淚涓涓滿紅頰 雖然兩地隔江山 夜夜夢魂能跋涉
 兒家離別知幾何 此別愁城最重疊 倚欄搔首獨含情 却嘆年來多惡業
 知君去作五陵郎 花月樓臺心自愜 休將新愛負前盟 背信人難可追攝⁸⁾
 銘心歷歷省愆尤 人自不能見其睫 但願努力到龍門 萬里雲衢穩跨躡

- 제4수 <業 代金蓮>

위의 세 수는 “알지 못하겠구려, 금련이의 가련한 촛불은, 비단 병풍 깊
 은 곳에서 어떤 심정을 비추고 있는지(不識金蓮可憐燭 錦屏深處照何
 情)”에 대한 응답에 해당한다.

먼저 제2수인 <창(窓)>에서는 금련이가 곁에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권유를 담았다. 금련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에 마음이야 들끓겠지
 만 짝 잃은 기러기 신세인 양 굴지는 말라는 권고이다. 첫구의 ‘蓮燭’은
 ‘금련의 등촉’으로도 해석되어 중의적 해학이 가미되었거니와, 그런 점에
 서 보면 지금 혹시 ‘蘭釭’ 곧 이름에 ‘蘭’자가 붙은 어느 기녀랑 사귀고 있
 느냐는 알미운 질책도 섞여 있는 듯하다.

제3수 <苦>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을 자아내는 대목은 “내 인생은 이제
 풍류를 끊었다”고 선언하는 부분이다. 이면을 음미하자면 원주에서 같이
 공부할 당시에 두 사람은 아마도 금련의 기방에 함께 출입했을 듯하다.
 그렇기에 허중원이 은밀하게 금련의 사연을 물었을 터이고, 지금도 금련

8) 번역 운곡시사에는 榻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의 기방에 드나든다면 그 소식 좀 알려달라고 허중원이 보낸 셈이다. 하지만 원천석의 답변은 난 이제 그런 곳에는 발길을 끊은 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의 사랑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등, 그 대가 금련이를 믿는 마음은 천금 같겠지만 금련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다는 등, 기방의 여인이니 어여쁜 겉모습과 달리 이익을 따라 처신하는 법이며, 따지고 보면 그 행실에 애초 믿을 게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신보다도 금련의 근황을 더 궁금해 하는 친구에게, 금련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고 있으니 그녀에 대한 연정은 접으라고 권고한 셈이다.

제4수는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꾸어 금련의 처지에서 사랑의 시를 베풀었다. 오매불망 당신을 그리며 나날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니, 새 사람 사귀어 마음 바뀌지 말고 성공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艷調를 구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금련을 대신하여(代金蓮)’ 지었다고 밝힘으로써, 시적 화자가 금련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교체되어 있는 것인데, 이에 걸맞게 작품의 정조는 여성적 목소리로 일관하며, 이별의 설움과 그리움, 사랑을 잃을까 조바심치는 심리, 성공하여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차례로 풀어놓고 있다. 이때 여성 화자에 가탁한 기법은 간절한 호소력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수신자인 허중원을 놀리는 해학적 장치에 더 가깝다.

제2수에서 제4수는 의미심장한 충고라 할 수 없다. 금련에 대한 허중원의 마음이 얼마만큼의 진정을 띤 것이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원천석의 관점에서는 이 사태를 가벼운 시적 유희의 소재로 바꾸어 사용했다고 해석된다. 이 가벼움이 화자의 목소리를 갖게 변동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가볍고 짓궂은 해학은 <深>에 이르러 고체시의 호흡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杜牧이 湖州의 약속을 못 지켜
 꽃 지고 녹음 우거진 것을 질로 한탄했음을⁹⁾
 또 보지 못했는가! 崔護가 그 해에 얼굴을 보지 못해
 붉은 복숭아 문밖에서 부질없이 상심했음을¹⁰⁾
 그대는 겪은 일은 이와 달라서
 가는 곳마다 이름난 꽃숲이었네.
 金塘에선 밤마다 연밥을 뺐으니
 뭉게뭉게 짙은 향이 옷자락에 스며들었지.
 평생에 행락을 마음껏 다했으니
 맑은 흥취가 얇고 깊고를 따져서 무엇하랴.
 헤어진 뒤 새로 지은 시가 홀연 내 책상에 떨어지니
 서로 그립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을 달랠 길 없네.
 그대여! 그대여! 속히 돌아오게나!
 나 홀로 차가운 이불 지키며 원망 품게 하지 마시길.
 君不見杜牧不及湖州約 自恨花殘成綠陰
 又不見崔顥¹¹⁾當年不見面 紅桃門外空傷心

9) 당나라 두목이 湖州에는 미녀가 구름처럼 많다는 소문을 듣고 놀러갔으나 정작 호주 자사가 소개해준 유명한 기생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떤 노파가 데리고 온 10세 소녀가 장차 질세가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재물을 주어 聘禮를 올리며 십년 뒤에 호주자사가 되어 오면 부인으로 맞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4년 뒤에 두목이 호주자사가 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 여인은 이미 3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두목은 <悵詩>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自是尋春去較遲, 不須惆悵怨芳時. 狂風落盡深紅色, 綠葉成陰子滿枝”라 하였다.

10) 당나라 때의 미남인 崔護가 과거에 누차 낙방한 채 장안을 구경하다가 마침 복숭아꽃이 만발한 집에 이르렀다.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대문을 두드리자 복숭아꽃처럼 어여쁜 여인이 나와 맞았고 둘은 한 눈에 반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듬해에 최호가 이 집을 다시 찾았을 때는 문이 굳게 닫힌 채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최호가 <題城南庄>이란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去年今日此門中, 人面桃花相映紅. 人面不知何處去, 桃花依舊笑春風”이라 하였다.

11) 원문에는 ‘崔顥’로 되어 있으나 시의 문맥으로 보건대 ‘崔護’의 오각으로 보인다.

先生所遇異於斯 到處皆是名花林
 金塘夜夜採蓮去 冉冉濃香薰素襟
 平生行樂盡適意 清興何須論淺深
 別後新詩忽然落吾案 相憶相思猶未禁
 君乎君乎速廻轡 毋使農家含憤守寒衾

이 시는 화자가 원천석인 듯하지만, 그 뒤에 금련의 목소리(예컨대 農家)까지를 중첩시킴으로써 남성화자와 여성화자의 애원을 함께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작품의 함의인 즉, 그대[금련의 입장에서는 당신이라 볼 수도 있겠다]는 두목과 최호가 사랑했던 사람을 못 만났던 사연과는 판연히 다르게, 가는 곳마다 미인들과 인연을 맺어 인생의 환락을 충분히 즐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별의 그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 곁으로 돌아오라는 뜻을 담았다.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은 “金塘夜夜採蓮去 冉冉濃香薰素襟”이다. 구중에 ‘金’자와 ‘蓮’자를 점화한 수법이 골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점묘한 의미가 또한 장난스럽다. 지난날 허중련이 날 이면 날마다 연밥을 따듯 밤이면 밤마다 금련의 방에 드나들었던 소행을 은근히 꼬집어 내었고, 그때마다 물큰할 만큼 들의 정분이 짙었음을 묘파해내었기 때문이다. 원천석 자신의 목소리와 금련의 목소리를 분리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꼬이놓은바,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전달하기 위한 화자 장치가 모두 詩戲의 문맥을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4. 맺는말

이상에서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를 중심으로, 운곡 원천석 한시에 나타난 시희의 양상을 조명해보았다. 원천석의 시집

인 『운곡시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역사학적, 풍속학적, 생활사적, 정치사적 접근을 두루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한시사의 각도에서도 주목할 만한 요인들이 적지 않다. 이중 이 글에서는 특별히 詩戲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고려문인의 현전문집이 30여종에 불과한 조건인지라 당대 시단의 시회를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는 자료 역시 제한적이다. 精選의 엄밀한 기준을 비교적 가볍게 통과한 『동국이상국집』의 경우라 해도 시회를 살필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당대 문단의 시회가 비단 쌍운과 회문에 머물렀을 것 같지는 않다. 『과한집』, 『보한집』, 『역옹패설』과 같은 시화서에서도 應口捷對, 刻燭賦詩, 次韻酬唱, 對聯酬酌, 回文詩 등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시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운곡시사』에 수록된 시회적 성격의 자료들은 한국한시사에서 펼쳐졌던 시 문화의 한 실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앞서 살핀 바, 운곡 시회의 실제도 시회의 역사에서 보면 일정한 역사적 단층을 반영하고 있다. 各體, 詞牌, 雙韻, 分韻은 이체시의 영역에 견주거나, 혹은 해체시와 과격시의 흐름에 견주어 한국한시가 본격적으로 정착해나가는 단계에서의 한 지류라고 설명해볼 수 있다. 이런 실상은 그것대로 한시사의 흔적이며 증언이라는 점에서 시사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할 만하다. 그런데 특히 이 글에서 집중해서 조명한 <許同年仲遠以詩見寄 分字爲韻二十八首>는 분명히 이례적이며 흥미로운 작품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본다. 이 작품이 과연 감명을 불러일으키는 대단한 작품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 글을 쓴 의도와 별개의 문제이다. 반면에 시회의 영역에서 이토록 이색적인 작품이 14세기에 존재했다는 그 사실만은 한시사의 한 장면에서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본다.

참고문헌

【자료】

- 원천석, 『耘谷詩史』, 국학자료원, 2008.
원천석 저, 이인재·허경진 옮김, 『국역 운곡시사』, 혜안, 2007.
李仁老, 『破閑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陳澹, 『梅湖遺稿』.
崔滋, 『補閑集』.
李齊賢, 『櫟翁稗說』.

【참고논저】

- 吳積才, 『異體詩淺說』, 雲南教育出版社, 1986.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김남기, 「元天錫의 生涯와 詩史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2, 1996.
김인호, 「원천석의 당대 인식과 처세의 지향」, 『耘谷 元天錫 研究』(乾), 원주시, 2007.
김홍삼, 「『耘谷詩史』의 승려·사찰과 여말선초의 불교동향」, 『耘谷 元天錫 研究』(坤), 원주시, 2007.
박경안, 「원천석의 은둔생활과 현실인식」, 『耘谷 元天錫 研究』(乾), 원주시, 2007.
이익주, 「원천석의 생애와 현실인식 재고」, 『耘谷 元天錫 研究』(乾), 원주시, 2007.
이인재, 「고려말 원천석의 학문관과 지역활동」, 『한국사상사학』 15, 2000.
이인재, 「중세 지방지식인, 원천석 삶의 이모저모」, 『耘谷 元天錫 研究』(乾), 원주시, 2007.
정호훈, 「조선후기 耘谷詩史의 영향과 高麗史 敘述의 변화」, 『耘谷 元天錫 研究』(乾), 원주시, 2007.
최광범, 「운곡 시(詩)에 나타난 자연미와 인격상」, 『耘谷 元天錫 研究』(坤), 원주시, 2007.
허경진, 「『운곡시사』에 나타난 시사(詩史)의 의미」, 『耘谷 元天錫 研究』(乾), 원주시, 2007.

ABSTRACT

A Study on Ungok Won Cheonseok's Merrymaking Game of Poetry

Kim Dong-jun*

This paper selected, and drew an overall picture of, works of merrymaking game of poetry from *Ungoksisa* (i.e., Historical Poetry by Ungok), and analyzed them, focusing on the 28 poems written for Heojungwon. These poems take the unique form of playful literary works, which need to be paid careful attention in the history of Sino-Korean poetry.

In Chapter 2, cases of merrymaking game of poetry that can be summarized from *Ungoksisa* were organized an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explained. In Chapter 3, the 28 poems written for Heojungwon became a focus of analysis, which showed that these poems have important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history of poetry. These poems are one of the interesting achievements of the 14th century Sino-Korean poetry and in particular can be evaluated as a unique and experimental work of poetry in the history of playful Sino-Korean poetry.

Merrymaking game of poetry originated from an intention to take the pleasure of composing poems. But it can also be a window into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enjoying poetry. In this context, the works of Won Cheonseok can be said to be important that explain the cultural function of Sino-Korean poetry of the late Koryo period.

Key Words Won Cheonseok(元天錫), 『Ungoksisa』(historical poetry by Ungok), Merrymaking Game of Poetry, 28 Poems written for Heojungwon(許仲遠).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Ewha Women's University.